

■ 최신 해외정보 - 라오스 ■

광산업 인허가 및 고무재배사업을 위한 토지 양여권 발급 중단

라오스정부는 광산개발사업과 고무재배사업으로 인한 환경·사회적 영향을 우려하여, 2015년까지 광산업 인허가와 고무재배사업을 위한 토지 양여권 발급을 임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광산업의 경우 수력발전사업 및 농업과 더불어 라오스정부가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던 주요 사업부문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, 금번 정책은 라오스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
한-라오스 경제협력 강화 기대

라오스 총리 통싱 탐마봉(Thongsing Thammavong)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라오스의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. 한-라오스 양국 관계는 1995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바,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베트남, 중국 및 태국에 이어 라오스의 4대 투자국가로 상승하였습니다. 금번 라오스정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,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차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.